

지역소멸 위기 속 '시민중심 으뜸정읍' 실현 현실화

민생경제 챙기고 청년혜택·육아정책 강화



이학수 정읍시장

이학수 정읍시장은 2023년 초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삶을 돌보고, 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민생'을 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한 첫 번째 정책으로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 자금 역의 유출방지를 목표로 정읍사랑상품권 600억원을 발행했고, 발행 8개월만에 조기 완판하며 내수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특히 정읍형 공공배달앱은 정읍사랑상품권과의 연계,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며 지역경제의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며 세계 인류 역사가 함께 보존하고 전승해야 할 유산으로 인정받았고, 세계 5개국 6개 도시의 시장단과 함께 '혁명과 사람'을 주제로 제2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를 개최하는 등 동학농민혁명 세계화와 선양사업을 강화했다.

또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읍시'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공공산후조리원과 소아병동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며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시민중심 으뜸정읍' 실현을 현실화 하고 있다.



▲민생경제 살리고 시민 행복지수 높이기 주력

정읍시는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각고의 노력을 했다.

먼저 지난해 5월 출시한 정읍형 공공배달앱 '위메프오'는 각종 할인 혜택으로 7만 건 이상의 주문 건 수를 기록하고, 매출액 16억8,000만 원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특히 중개수수료율이 2%로 민간 배달앱보다 현저히 낮고 광고비 감면, 입점비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 315개 업소가 등록하는 등 가맹점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소비자에게도 음식값 할인 쿠폰과 더불어 배달비 할인,페이백 지급 등 풍성한 혜택으로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정읍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10% 추가 할인혜택이 제공돼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나타났다.

또 정읍형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마련했다. 시는 연초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고, 4개 분야 일자리 추진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일자리정책추진단도 출범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친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1기업 1공무원 담당제를 지속 운영한 결과 ㈜우통, ㈜과수이제 농업회사법인 등 6개 기업 유치에 성공, 44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 성과를 인정받아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시군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6월에는 취업박람회 개최해 23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내 129개의 기업을 전수 조사해 구인 계획이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계해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외에도 시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을 위해 2022년도 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 4182명에게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례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구당 20만원 씩 '한파대응 에너지 특별지원금'도 지급했다.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강화... 혁명의 도시 정읍 위상 공고히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정읍시는 지난해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와 선양사업에 주력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의 뿌리이자, 민주화운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대한민국의 진정한 출발이자 민주주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9일에는 세계 혁명도시인 아르헨티나 알타그라시아, 독일 뮌헨, 아일랜드 더블린과 코크, 중국 난징 등 5개국 6개 도시들의 대표단을 정읍에 초대해 연대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각 도시에서 순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읍에서 자체적으로 이어 온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제56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5월 11일)에 제129주년 국가기념식과 함께 개최해 국가행사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또 '동학농민혁명'의 첫 배경이 된 고부관아

공공배달앱 '위메프오'



정읍형 공공배달앱 '위메프오' 매출액 16억8000만원 돌파 시민 큰 호응 얻어 성공 정착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주력 명칭·정신 헌법 전문 포함 국회서 공동성명 발표하기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공고화... 지방소멸 대응 공공산후조리원 2026년 완공 올해까지 소아외래진료센터 어린이 전용병동 설치키로

청년연령 45세로 상향 조정 주거·취업준비 지원 주력 창업활동 지원사업도 다채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포함



복원을 위한 첫 관문도 열었고, 농민군과 관군이 싸워 첫 승리를 거둔 황토현 전적 종합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 혁명의 시작점을 1894년 1월(양력 2월)에 있었던 고부농민봉기로 바로잡기 위한 행보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해 9월 15일 특별법 개정을 위해 고부농



공유농장도 개소식



공사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식



정읍시 취업박람회

민봉기 재평가를 위한 학술대회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졌고, 10월 26일에는 전국 39개 동학농민혁명 단체, 동학유족, 관련 학회와 함께 국회에서 동학농민혁명 명칭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정읍' 소아외래진료센터·공공산후조리원 순항

민선8기 정읍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공고히 하며 지방소멸위기에 착실히 대응하고 있다.

시는 정읍을 비롯한 서남권 산모들이 처한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방소멸 대응 광역기금과 지자체 기금 75억원을 확보해 2026년 상반기 공공산후조리원 완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용적률 일원에 10실의 산모실과 각종 부대 시설 (연 면적1089㎡)을 갖춰 지어질 예정이다.

핵심 공약 사업인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 전용병동 설치 사업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시는 올해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한 지방비 22억원을 들여, 정읍아산병원의 강당과 병동 일부를 리모델링해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 전용병동을 설치할 계획이다.

소아외래진료센터와 20병상 규모의 어린이 전용병동은 24시간 소아환자에게 필수로써 서비스 제공과,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읍뿐만 아니라 서남권 소아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져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시는 육아 지원을 위해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정부시책과는 별도로 자체예산 24억원을 들여 0~59개월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의 육아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14일에는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보육 정책 평가'에서 전북도에서는 유일하게 '보육정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청년혜택 늘리고 청년연령 45세로 상향... 주거·취업준비 지원 주력

정읍시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 개선을 위해 주거와 복지가 연계되는 청년정책을 마련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6월 청년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해 청년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청년인구가 7,300명 늘어 혜택 수혜자 또한 늘어날 전망이다.

먼저 시는 청년 지원기반 마련과 청년층 주거비 경감을 위해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최대 2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사업'을 진행해 총 112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았다.

이와 함께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전세자금의

1%(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에 국한하지 않고 45세 이하 청년이 주택 전세자금이나 구입자금으로 대출 시 대출이자 2%(최대 300만원)를 지원한다.

청년들의 공직·공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을 시작한 청년취업 준비반은 동영상강의 제공 뿐만 아니라 뛰어난 실력을 갖춘 강사들이 서울에서 내려와 직강을 하는 등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해 운영 6개월만에 제3회 전북지방공무원 시험에 4명이 합격하고 11월에는 금융권에 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더불어 취업준비 청년을 위해 취업용 건강진단서 발급 비용(1인 1회 최대 4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취업을 위한 필수·최종 단계인 건강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해 구직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이다.

이와 함께 면접 정정이 필요한 청년을 위해 정장 대여비(1회 5만원)를 지원하고, 외국어말하기평가(Opic)에 대비한 어학자격취득반도 운영하는 등 구직 청년 복지를 강화했다.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도 다양하다. 드론, 노트북, 1인 미디어 세트 등 뉴미디어 관련 창업을 돕는 '장비대여사업빌더드림(DREAM)' 사업과, 청년 창업가에게 3년간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는 정읍형 로컬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정읍=김대환기자